

# 국내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전화 금융사기>

## 광주 서부경찰, 중국인 등 5명 구속·입건...25명에 3억5천만원 가로채

### 조선족 등 입·출국시켜 CCTV 추적 피해

중국인이 건 국내 최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 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조직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수법을 써왔으며, 돈을 인출하는 조직원만도 수십여 명으로, 경찰에 적발된 피해액도 지금까지 최대 규모다.

광주 서부경찰은 7일 금융기관·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현금을 입금받는 수법(일명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 21명(21)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 서모(40·서울시 양천

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귀씨 등은 지난 9월 4일 낮 K은행 직원을 사칭, 최모(42)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도용돼 고유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속인 뒤 3천9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시키도록 해 가로챈 등 고모(여·49·여주시)씨 등 25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중국 현지 조직원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면 입금 통장을 마련해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실업자·노숙자·신용불량자 등 수십 명의 통장판매자를 모집한 뒤 개당 15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 '대포 통장'은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30대 중국인 부부에게 전달됐으며, 현금 인출은 다른 수십여 명의 조직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금 인출과정에서 CCTV에 얼굴이 찍혀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을 것을 우려, 중국 현지 중국인과 조선족 등을 교유한 뒤 '관광 비자'로 1주일 단위로 한국에 입국시키고 출국시키는 것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현지 조직은 이들에게 하루 20만원씩의 일당을 줬으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현지 가족을 불모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 통장'은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하고, 사용한 통장이나 카드는 곧바로 폐기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통장이 150여 개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피해자 수와 피해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또 달아난 총책 30대 중국인 부부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줬 통장을 판매한 한국인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10~12개 정도 더 있고 피해 금액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고속도로 통행카드 위조·유통

### 일본인 등 일당 10명 검거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다량으로 위조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은 7일 고속도로 통행카드 10만원 정액권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일본인 S(6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S씨로부터 위조된 통행카드를 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오모(42)씨를 구속하고 박모(4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김모(3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8월 7일 입국한 S씨는 서울 한남동 동거녀 집에 머물면서 김씨로부터 위조용 공카드 7만2천여 장을 받아 10만원 정액권 고속도

로 통행카드를 만들어 오씨 등에게 건넨 혐의다.

김씨는 중국 광저우에 체류 중인 K씨로부터 위조용 공카드 367만2천여 장을 받아 이 중 7만2천여 장을 S씨에게 건넸다.

오씨는 판매원을 통해 S씨로부터 받은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카드 3만5천여 장을 5만원씩 받고 서울과 대구 등 도매상에게 판매해 17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박씨 등 판매원에게 "대신 비자금을 현금화시켜 주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은밀히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반값에 내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등산객 독사 조심

### 무등산 등서 뱀 물려 긴급구조 사고 잇따라

가을에 접어들면서 독사 등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0시46분께 광주시 무등산 장봉재에서 광주 B요양원 관계자 20여명과 단체등반에 나선 이모(22·공익요원)씨가 독사에 왼손 집게 손가락을 물려 출동한 소방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풀숲에 떨어뜨려 주우려다 15~20cm가량 되는 뱀에 물렸고, 해독제를 맞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께 광양시 옥곡면 대쪽리 대리마을 야산에서 밤을 졸던 이모(78)씨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독사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두꺼운 등산화 신어야 하고,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막대 미리 해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들 권하는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최고, 혁신, 도전, 대타격

**KCC광호, 시스텔광호 생산·시공**

▶ 02-2629-1144 ▶ 02-2629-1145 ▶ 02-2629-1146

---

**(주)본드나리** KCC-신뢰, 책임, 대타격

**실리온·방수공·침착재·타이브**

▶ 02-2629-1147 ▶ 02-2629-1148 ▶ 02-2629-1149



흥겨운 효도잔치 7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효도잔치'에서 복지관 회원이 아코디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범무법인 '로컬'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거노인 1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 뽕소니엄 현장에 변호관 넘겨 달미

○30대 뽕소니 범이 사고 현장에 차량 번호 판이 달린 앞 범퍼(bumper)를 떨어뜨리고 가는 바람에 경찰에 달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노모(30·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지난 6일 새벽 12시30분께 북구 문흥동 N페인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에서 자신의 '광주87가×××호' 화물 트럭을 몰고가던 중 앞서 가던 신모(4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과 5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번호판을 발견, 뽕소니 6시간 만에 집에서 사고 있던 노씨를 붙잡았다고.

○노씨는 경찰에서 "지난 1998년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무면허 운전인데다 술까지 마셔 겁이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술집 '관측'위한 성관계는 무죄?

#### 법원, "손님 유인 행위" ...논란 예상

술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관측행위'로서 술집 여종업원과 손님들간의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해 온 김모(여)씨는 2006년 5월~6월 서울 강남의 한 직업알선브로커로부터 술집 여종업원 4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에게 선불금 조로 각 250만~6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했다.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N주점 여종업원들의 손님 관리는 성관계로 이뤄졌다. 주점을 찾아오는 해당 손님들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뒀다가 술을 마신 며칠 뒤 낮에 그 손님과 연락해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시 금액 지급은 일체 없었다. 그 손님들은 저녁에 주점으로 찾아와 술을 마셨고, 이 같은 방식은 계속됐다.

손님과의 성관계는 여종업원의 자유 의지였고, 때문에 삶을 경우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 김씨는 자신의 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이모(여)씨가 한국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자신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김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이씨는 같은 죄 및 직업알선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김씨의 영업방식이 '성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에 대한 직업알선법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주)조이트레블**

234-3222

279,000

339,000

399,000

329,000

429,000

499,000

**광주 - 북경 취항**

419,000

769,000

859,000

559,000

709,000

**상사항공(주) 단체여행**

179,000

199,000

219,000

239,000

259,000

**대한항공**

569,000

599,000

549,000

539,000